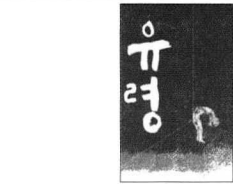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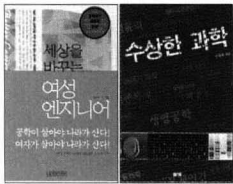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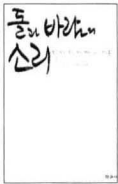


##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3월 후보도서



《유교담론의 지형학》 이승환 지음 | 푸른숲 | 384쪽 | 값 20,000원  
조선의 도통道統 담론에서 17세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유교 이해와 20세기 말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에 이르기까지 유교 담론의 역사를 깊이 있게 전개한 책이다. 특히 유교를 옹호하면 보수주의자이고 유교를 비판하면 진보주의자라는 도식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유교의 비자본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야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지혜적 측면도 조명하고 있다.

《다시 쓰는 택리지 1, 2, 3》 신정일 지음 | 휴머니스트 | 1권 356쪽 값 14,000원 | 2권 444쪽 값 18,000원 | 3권 400쪽 값 16,000원  
발로 글을 쓰는 사람이란 얘기를 듣는 신정일 씨가 답사 때마다 택리지와 대동여지도를 참고해 가며 새롭게 쓴 인문지리서다. 경기 충청편, 전라 경상편, 강원 함경 평안 황해편으로 나누어 우리 국토의 지형도와 지역별 사람살이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대부분의 지리서가 ‘오늘’만 보여주는 데 반해 ‘다시 쓰는 택리지’는 ‘어제’의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돌고 바람의 소리》 이타미 준 지음 | 학고재 | 256쪽 | 값 13,000원  
건축은 인간이 이룩한 업적이며 귀중한 서명署名이라고 말하는 재일 건축가의 건축 인간 예술론이다. 프랑스 국립 기메미술관이 개인전으로는 최초로 저자를 초대했을 정도로 세계적 건축가의 반열에 편입한 한 건축가의 정신적 세계와 작품세계를 동시에 살필 수 있다. 체온을 느끼게 해주는 건축가의 세계를 다룬 책답게 질감이 느껴지는 편집도 돋보인다.

한국여성근현대사 전3권  
《한국여성문화사》 《한국여성인물사》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전경옥 외 지음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각권 384쪽 내외 | 값 각권 15,000원  
개화기부터 시작, 1945년까지 한국여성의 근현대사를 분야별로 나누어 정치하게 분석하고 정리한 여성학술서다. 그러나 여성사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사회 인물 문화를 통해 전체사를 재현하려는 필자들의 의지가 돋보인다. 양성평등과 인간해방이라는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여성의 삶을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최순자 외 지음 | 생각의나무 | 300쪽 | 값 14,000원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공학인들이 공학 현장에서의 삶과 성취감, 여성공학인의 필요성, 공학계의 숙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집필한 글을 모았다. ‘여성, 공학 그리고 한국사회

의 교육’을 비롯 2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공학 발전 대안과 여성공학자로서 입신하기까지의 과정이 자전적 기록과 함께 소개된다. ‘공학과와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한국 공학한림원과 출판사의 공동기획으로 나온 책이다.

《수상한 과학》 전방욱 지음 | 풀빛 | 272쪽 | 값 12,000원  
생명공학의 발전이 인간의 실생활까지 침투한 상황에서 과학의 본질적 측면과 함께 과학자의 윤리·의식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비판적 생명과학서이다. 반성적인 과학을 주된 메시지로 채택한 그의 도발적 접근은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인본적 시각에 치우쳐 있다. 생명공학 발전의 현단계를 짚으면서 강한 톤으로 과학자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령》 한동림 지음 | 문학동네 | 272쪽 | 값 8,500원  
아버지 한승원, 누이동생 한강과 함께 소설가 집안을 이루고 있는 신예작가의 첫 소설집이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데뷔 작품인 〈변태 시대〉를 비롯 8편의 중단편을 묶었다. 작가는 삶과 죽음을 병치시킴으로써 비상사태 속에 살아가는 군상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익숙한 신예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둑의 누이》 송은일 지음 | 문이당 | 296쪽 | 값 8,800원  
서사와 사유를 절묘하게 교직해 내는 선 굵은 여성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어머니와 배다른 오빠로 설정된 인물 구도 속에서 삶의 허방을 보여주는 송씨의 이야기 전개는 금고제작업자의 금고털이 행각, 오빠를 쫓는 형사와 ‘나’와의 관계 등 구도 설정에 있어서도 물씬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

《사유의 열쇠》 박이문 지음 | 산치림 | 384쪽 | 값 15,000원  
개념사전 형태의 철학교양서다. 생각과 생각을 전하는 말의 뜻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101개의 개념을 선정하고 여기에 저자의 비판적 사유를 덧붙임으로써 사전과 철학개론서 역할을 하도록 꾸몄다. 언어, 인식, 존재, 변화, 가치 등 개념별로 9부로 구성돼 주제어 사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간디학교의 행복 찾기》 여태전 지음 | 우리교육 | 264쪽 | 값 13,000원  
일반학교 현직 교사가 대안교육체인 간디학교의 운영과 가치, 현실적 모순 등을 다양하게 짚어낸 책이다. 대안학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학교는 대안학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교육개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환상으로 인식되기 십상인 대안학교의 운영 교육과정 등을 부록에 담았다.